

#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심리적 특성

김 현 숙<sup>†</sup>  
(부산대학교)

## The Differenc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ell Phone Dependency and Use Purpose in Cell Phone Users of Adolescences

Hyun-Sook KIM<sup>†</sup>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ell phone dependency and use purpose in cell phone users of adolescenc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ere consisted of attention aggression, somatic symptoms,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variables. The subjects were 2,158 cell phone owned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 A data of the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KCYPS) was employed for the this study. Dependency and use purpose of cell phone were classified by cluster analysis into four group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 'high dependency-multipurpose', 'low dependency-social', 'low dependency-unsocial', 'middle dependency-peer interaction' groups.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group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ow dependency-social' group showed highest on adjustments, and the other groups were maladaptive. Finall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ell phone dependency, Use purpose in cell phon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luster analysis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2012)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약 5,28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97.0%에 이르고 있다. 이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의 역

할을 넘어서 디지털 기기의 모든 기능을 가진 매체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는 생활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기술집약적 매체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특성으로 인해 기성세대에 비해 뉴미디어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10-2576-8261, water21c@hanmail.net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이 있다(양영종, 2003).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9.9%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이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청소년들은 휴대전화가 제공하는 즐거움, 사회적 관계, 도구적 편리성, 문화적 의미 등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에 따라 휴대전화의 지나친 의존의 문제는 우울, 불안, 강박증세, 뇌세포 손상 및 신체통증, 수업에서의 과도한 문자메시지 사용, 학업능력 저하, 고액의 사용요금과 같은 정신 및 신체건강, 학교적응, 경제적 문제 등에서 부적응을 야기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구현영, 2010; 구현영, 박현숙, 2010; 이정화, 박정연, 최선희, 2008; 이해경, 2009; 장성화, 2011;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 중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휴대전화의 사용은 활발한 사회망을 구성하게 하여 청소년의 고독감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Ogata, Izumi, & Kitaike, 2006), 중독적인 사용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병적인 불안감이나 초조감,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박순천, 백경임, 2004; 송은주, 2006; 한상훈, 2008).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정신건강 면에서 취약한 시기이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행이나 일탈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가 행동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은 여러 연구에서 휴대전화의 의존과 상호 영향을 주

고 받는 변인으로 파악된다.

우선,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휴대전화 중독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변별하는 매우 의미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특히 휴대전화 과다 사용으로 인한 주의집중력 저하는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성화, 오은정, 2009). 공격성 또한 휴대전화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김혜수 등(2007)의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 고위험 청소년은 저위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격성은 인터넷 중독과 같이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김종범, 한종철, 2004; 윤현민, 박성연, 2005),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화 증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박영진, 장성화, 2009), 송은주(2006) 및 장성화와 박영진(2010)의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중독에 따라 신체화 증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과도한 전자파 노출은 두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머니투데이, 2011), 과도한 문자메시지 이용은 어깨 및 손목에 통증을 느끼는 문자메시지 통증이라는 신종 증후군을 야기하기도 하므로(매일신문, 2007),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Kurdek와 Krile(1982)는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청소년의 외로움 현상을 사회적 위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관련되어 직접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외로운 사람들은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내향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에 중독에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Sadava & Thompson, 1986),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이 휴대전화 중독에 취약하게 된다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는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 의존을 강화시킬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매체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oung & Rogers, 1998). 우울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중독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송은주, 2006), 우울 성향은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고(양심영, 박신영, 2005; 이해경, 2008),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과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구현영, 2010; 김혜수 등, 2007; 장성화, 조경덕, 2011).

한편, 휴대전화 사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이상에서처럼 휴대전화 의존에 초점을 두고 많이 수행되었다(고충숙, 2012; 손현경, 안숙희, 이해정, 2006; 양심영, 박영선, 2005; 이해정 외, 2007; 장혜진, 채규만, 2006). 그러나 매체의 영향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Katz, Blumler, & Gurevitch, 1974). 몇몇 연구에서도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이 휴대전화에 갖는 매체특성요소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지영 등, 2012; 최병목, 조규영, 연화준, 정무환, 2005; 이해경, 2009). 예컨대, 이해경(2009)은 휴대전화의 매체특성요소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오락적 이유, 사회적 이유, 이동즉시성의 이유, 도구의 편리성의 이유, 문화적 이유 순으로 사용할수록 휴대전화에 의존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지영 등(2012)도 휴대전화를 오락적인 이유로 이용하는 것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 의존도와 이용 목적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이들의 관련성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와 이용목적에 포괄하여 심리적 특성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이해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Rogers(1983)에 의하면 한 사회에 새로운 미디어가 유입되었을 때 이를 채택하는 집단별 유형에 따라 각 집단이 갖는 사회·심리적인 특성이 다르며, Plant(2000)는 휴대전화 이용 행동의 유사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집단별로 비슷한 사회경험이나 신념,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휴대전화의 의존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집단이 구분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각 집단에 반영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 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휴대전화 의존과 이용 목적을 함께 고려해서 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어떠한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하위집단에 따라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휴대전화 사용 청소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하위 집단별로 심리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 파악하여, 휴대전화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라 나타난 집단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7년간의 단기종단연구로 설계하여 2010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에서 2010년 당시 중1 패널의 2차년도(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2011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며, 2009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에 의해 표집되었다. 2차년도 최종 표본수는 2,351명이며, 이 중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2,351명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 2,158명이며, 이 중에서 남학생은 1,063명(49.4%), 여학생은 1,091(50.6%)이다.

## 2. 측정도구

### 가.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시형 외(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보내고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87이다.

<표 1>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목적의 문항 내용 및 신뢰도

변수	문항내용	Cronbach's $\alpha$
휴대전화 의존도	1)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87
	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3) 휴대전화로 한참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5)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6)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7)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휴대전화 이용목적	1) 가족과의 통화	.69
	2)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3) 친구와의 통화	
	4)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5) 게임 및 오락	
	6) 사진촬영	
	7) 동영상감상	
	8) 음악듣기	
	9) 시간보기	

나. 휴대전화 이용 목적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은 9개 항목(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시간 보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주 사용한다'(1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

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역코딩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69이다

다. 심리적 특성 변수  
(1) 주의집중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 (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항은

<표 2> 심리적 특성 척도의 문항 내용 및 신뢰도

변수	문항내용	Cronbach's $\alpha$
주의 집중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79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공격성	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81
	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4)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신체화 증상	1)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86
	2) 머리가 자주 아프다.	
	3)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4)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5)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6) 자주 피곤하다.	
	7) 숨쉬기 어렵울 때가 있다.	
	8)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회적 위축	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85
	2)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4) 수줍어한다.	
	5)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우울	1) 기운이 별로 없다.	.90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3) 걱정이 많다.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울기를 잘한다.	
	6)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자주 한다.	
	7) 외롭다.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0) 모든 일이 힘들다.	

역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79로 나타났다.

(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81로 나타났다.

(3) 신체화 증상

신체화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85로 나타났다.

(5)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과 김재환 및 원호택(1983)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

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 점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절차를 따랐는데, Wards의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군집간 심리적 특성 변수들이 군집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평균간 사후 비교를 위해 Scheffé( $p < .05$ )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값은 원자료에서 역채점하여 분석한 결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척도에서 2.31로 중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 목적 가운데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감상 및 음악듣기가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시간 보기에 비

해 낮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심리적 특성 변수 들 가운데 주의집중은 다소 높은 평균값을 나타 낸 반면, 우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표 3>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휴대전화 의존도	2,158	1	4	2.31	0.75	
휴대전화	가족과의 통화	2,158	1	4	3.46	0.64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2,158	1	4	3.04	0.82
휴대전화	친구와의 통화	2,158	1	4	3.57	0.63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2,158	1	4	3.72	0.56
이용목적	게임 및 오락	2,158	1	4	2.91	0.99
	사진촬영	2,158	1	4	2.81	0.95
	동영상감상	2,157	1	4	2.23	0.99
	음악듣기	2,158	1	4	2.96	1.10
심리적 특성	시간보기	2,158	1	4	3.65	0.70
	주의집중	2,157	1	4	2.39	0.53
	공격성	2,158	1	4	2.13	0.57
	신체화 증상	2,158	1	4	2.02	0.63
	사회적 위축	2,157	1	4	2.24	0.71
	우울	2,156	1	4	1.93	0.62

## 2.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집단 구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의 유사성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휴대전화 의존도 및 9개 항목의 휴대전화 이용 목적의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인 Wards방법을 통해 도출된 군집화 일정표를 바탕으로 4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4개의 군집 수를 기준으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K-평균법을 실시한 결과 최종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한 값(평균=0, 표준편차=1)을 네 개 군집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평균간 사후 비교를 위해 Scheffé(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네 개 군집간에 휴대전화 의존도 및 9개의 휴대전화 이용 목적은 모두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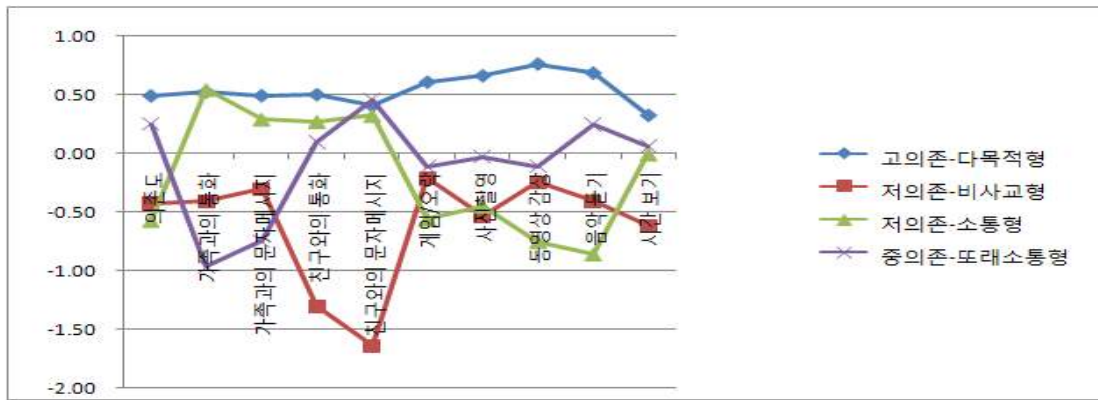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군집을 명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1은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33.2%(717명)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속해 있다. 이 집단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9개의 휴대전화 이용 목적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휴대전화 없으면 불편하거나 불안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보거나 게임 및 오락, 음악듣기, 동영상감상, 사진촬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있으므로 '고의존-다목적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19.4%(419명)를 차지하고 있어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가장 적은 청소년들이 속해

<표 4> 최종 군집별 군집요인의 표준화 점수

군집요인	군집1( <i>n</i> =717)	군집2( <i>n</i> =419)	군집3( <i>n</i> =517)	군집4( <i>n</i> =504)	<i>F</i>
	고의존-다목적형	저의존-비사교형	저의존-소통형	중의존-또래소통형	
휴대전화 의존도	0.49(2.68)a	-0.43(1.99)c	-0.57(1.88)c	0.24(2.49)b	188.34***
휴대전화 이용 목적					
가족과의 통화	0.52(3.80)a	-0.41(3.20)b	0.54(3.81)a	-0.97(2.84)c	502.62***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0.49(3.44)a	-0.31(2.78)c	0.29(3.27)b	-0.75(2.42)d	238.32***
친구와의 통화	0.50(3.89)a	-1.30(2.75)d	0.27(3.74)b	0.09(3.63)c	547.99***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0.41(3.95)abc	-1.64(2.80)d	0.32(3.90)c	0.45(3.98)a	1337.68***
게임 및 오락	0.61(3.52)a	-0.21(2.70)b	-0.56(2.36)c	-0.12(2.80)b	190.06***
사진촬영	0.66(3.43)a	-0.53(2.30)c	-0.45(2.38)c	-0.03(2.77)b	238.01***
동영상감상	0.76(2.98)a	-0.24(1.99)b	-0.75(1.49)c	-0.11(2.12)b	370.12***
음악듣기	0.68(3.71)a	-0.41(2.51)c	-0.86(2.01)d	0.24(3.23)b	434.19***
시간보기	0.33(3.88)a	-0.62(3.22)c	-0.01(3.65)b	0.05(3.69)b	89.56***

주. 괄호 안은 비표준화된 평균 점수. a>b>c>d 순의 평균크기, 다른 문자를 갖는 평균은 Scheffé 검증에 의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다름. \*\*\* $p<.001$



[그림 1] 군집별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의 표준화 점수

있다. 이 집단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편에 속하며, 사진촬영, 동영상감상, 음악듣기, 시간보기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정도와 가족과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다른 집단에 비해 중간 정도인 반면,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용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는 다소 사용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위한 목적에서는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으

며 '저의존-비사교형'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24.0%(517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낮고,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감상이나 시간보기를 위한 휴대전화 이용에 비해, 가족 및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는 뚜렷하게 높은 사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집단에 속하는 휴대전화 이용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적을 수 있으며, 주로 소통을 위한 활용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저의존



-소통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23.4%(504명)를 차지하며,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의존도는 중간 정도이고,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하는 것은 군집 1보다 낮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 가족과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목적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며,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목적에서는 군집 1과 군집 3정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집단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정도이고, 가족보다는 친구와의 소통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중의존-또래소통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3. 군집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앞에서 도출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네 집단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평균간 사후비교를 위한 Scheffé( $p<.05$ )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 가운데 주의집중[F(3, 2,155)=15.86,  $p<.001$ ], 공격성[F(3, 2,154)=15.19  $p<.001$ ], 신체화 증상[F(3, 2,156)=18.86,  $p<.001$ ], 사회적 위축[F(3, 2,155)=3.42,  $p<.05$ ], 그리고 우울[F(3, 2,154)=19.43,  $p<.001$ ]모두 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심리적 특성	고의존-다목적형 <i>M(SD)</i>	저의존-비사교형 <i>M(SD)</i>	저의존-소통형 <i>M(SD)</i>	중의존-또래소통형 <i>M(SD)</i>	<i>F</i>
주의집중	2.44 (0.54)ab	2.36 (0.52)bc	2.27 (0.51)c	2.47 (0.50)a	15.86***
공격성	2.21 (0.60)a	2.09 (0.58)bc	2.00 (0.55)c	2.18 (0.54)ab	15.19***
신체화 증상	2.11 (0.66)a	1.99 (0.60)b	1.86 (0.61)c	2.10 (0.60)ab	18.86***
사회적 위축	2.23 (0.71)	2.31 (0.68)a	2.17 (0.74)b	2.27 (0.68)	3.42*
우울	1.96 (0.64)a	1.97 (0.58)a	1.76 (0.58)b	2.03 (0.62)a	19.43***

주. a>b>c 순의 평균크기. 다른 문자를 갖는 평균은 Scheffé 검증에 의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다름.  
\* $p<.05$ , \*\*\* $p<.001$

각 심리적 특성별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p<.05$ )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주의집중 수준은 '중의존-또래소통형' 집단이 '저의존-비사교형'과 '저의존-소통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주의집중을 보였으며, '저의존-소통형'은 '고의존-다목적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주의집중 수준을 보였다. 공격성은 '고의존-다목적형'이 '저의존-비사교형'과 '저의존-소통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중의존-또래소통형'은 '저의존-소통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화 증상은 '고의존-다목적형'이 '저의존-비사교형'과 '저의존-소통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저의존-소통형'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신체증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위축은 '저의존-비사교형'이 '저의존-소통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집단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저의존-소통형'만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고, 다른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처럼, 각 집단은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휴대전화 사용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목적에 함께 고려하여 그 유사성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는 지 살펴보고, 그 집단에 따라 심리적 특성 변수,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라 '고의존-다목적형', '저의존-비사교형', '저의존-소통형', '중의존-또래소통형'의 네 개의 하위 집단이 나타났다. '고의존-다목적형' 집단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9개의 휴대전화 이용 목적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뿐 아니라 게임 및 오락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의존형-비사교형' 집단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친구와의 소통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른 이용 목적에서는 중간 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의존-소통형' 집단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나타내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용 목적에 비해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이용 목적에서는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의존-또래소통형' 집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중간 정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보이며,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는 가장 적게 이용하며,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는 '고의존-다목적형' 집단과 '저의존-소통형' 집단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 유형에서 나타난 특성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속해 있는 집단은 '고의존-다목적형'으로 나타났다(33.2%). 이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은 대인간 소통을 위한 통신 기능 외에 급속하게 다기능화되어 가는 휴대전화의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들과(고충숙, 2012; 성윤숙, 2008; 이해경, 2009) 일관된다. 김현숙과 서미정(2012)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이용 목적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고의존-다목적형'에 속한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대체로 휴대전화 이용으로부터 더 큰 충족을 얻는다는 것에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배진한, 2001). 이해경(2009)의 연구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고위험 집단 비율이 20대의 약 4배, 30대의 약 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사용의 문제에 대한 조기 예방 및 개입이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집단은 이용 목적에서 있어서 게임/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시간보기와 같은 도구적 차원에 비해 가족 및 친구와의 통화/문자메시지와 같은 소통을 위한 차원이 집단 구분에 더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이용 목적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고의존-다목적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집단은 이용목적에 있어서 가족과 친구 모두와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 '소통형', 상호작용하는 집단이 가족에 국한되어 있고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가장 낮은 '비사교형',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은 가장 적으면서 친구와의 상호작용만 두드러진 '또래소통형'으로 분류된 데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호작용을 위한 목적이 집단 구분의 주요 차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청소년은 매우 관계 의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박준범, 2000)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차원이 관계-정보 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휴대전화의 일상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정보 차원보다는 관계 차원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나은영(2002)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비사교형'과 '또래소통형' 집단과 같이 상호작용의 대상 중에서 친구와의 소통이 집단 구분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가 또래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발달 단계로써,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동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적 관계 유지로 나타나고(성윤숙, 2008), 또래 동조성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이연미, 이선정, 신효식, 2009)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의 의존도와 이용목적에 따라 하위 집단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나 속성에 따라 가족 및 친구와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나은영(2002)의 주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집단에 따른 청소년의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서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심리적 특성으로 주의집중은 '저의존-소통형'이 '고의존-다목적형'과 '중의존-또래소통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휴대전화 중독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변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김혜수 등(2007)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주의집중 문제는 수업시간에도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학업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장성화, 오은정, 2009) 교육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두번째 심리적 특성으로 공

격성은 '고의존-다목적형'이 '저의존-비사교형'과 '저의존-소통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중의존-또래소통형'은 '저의존-소통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저의존-비사교형'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휴대전화 의존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공격성 또한 주의집중과 같이 휴대전화 중독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변별하는 주요 요인임을(김혜수 등, 2007) 알 수 있다. 한편, '중의존-또래소통형'은 '저의존' 집단 중 '소통형'과는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비사교형'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서, 의존도 수준은 유사하지만, 이용목적에 있어서 '소통형'이 '비사교형'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 번째 심리적 특성으로 신체화 증상은 '고의존-다목적형'이 '저의존-비사교형'과 '저의존-소통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저의존-소통형'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신체증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화 증상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의 수준도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박영진, 장성화, 2009; 송은주, 2006). 또한 동일한 저의존 집단 중에서 '저의존-소통형'이 '저의존-비사교형'에 비해 신체화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의존도 수준은 유사하지만, 이용목적에 있어서 '소통형'이 '비사교형'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네 번째 심리적 특성으로 사회적 위축은 '저의존-비사교형'이 '저의존-소통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 위축을 보이고, 다른 집단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휴대전화의 의존 정도와 관련되기 보다 휴대전화의 사회적 관계 차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또래집단이 가장 중요한 사교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Peterson & Zill, 1986) '비사교형'의 집단이 사회적 위축감에 취

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의존-비사교형'은 특히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정도가 모든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문자메시지는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음성통화보다 더 큰 효용을 가지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결되는 관계의 유형과 특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김은미(2006)의 주장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문자메시지는 사회적 실재감이 높은 매체로서(김은미, 2006), 친구와의 문자메시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저의존-비사교형'의 사회적 고립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은 '저의존-소통형'과 다른 세 집단 모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러 연구에서 휴대전화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순천, 백경임, 2004; 송은주, 2006; 양심영, 박영선, 2005; 장성화, 조경덕, 2010)과 일치한 결과이다. 한편, 의존도가 유사한 집단 중 '저의존-비사교형'보다 '저의존-소통형'이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우울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주요 정서로서 대인간 상호작용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과도하지 않게 이용한다면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에서 네 집단 가운데 '저의존-소통형' 집단이 휴대전화 의존도는 가장 낮고, 주의집중은 유의미하게 높고,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은 모두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가장 적응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의존-다목적형'은 사회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저의존-비사교형'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심리적 특성에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의존-비사교형'은 휴대전화 목적에 있어서 소통의 목적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으로 도피성의 오락추구 성향을 보

이게 될 가능성으로(김주환, 진보래, 2004) 고의존 사용군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의존-또래소통형'은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나머지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신체화 증상에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 심리적 특성에서 '고의존-다목적형' 집단만큼 부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용목적에서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휴대전화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은 역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단편적인 관계에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으로 적응적 집단과 부적응적 집단을 파악하는 차이를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이용목적에 따른 집단에서 모든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문제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다룰 때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먼저 가장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인 '고의존-다목적형'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을 일부 대체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건전한 문화 및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집단은 대인간 소통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관계자체에 의존하거나 집착하여 오히려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이나 친밀감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저의존-비사교형'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위축감과 우울 증

상이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 집단의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또래와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로 휴대전화의 편리성을 활용하여 대인 상호작용을 넓혀가는 것이 우울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의존-또래소통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내의 갈등을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경우 교육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양상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존 및 심리적 역기능의 예방을 돕는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 문제 및 예방에 관한 부모 교육 또한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특성들에서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충동성, 자기통제력, 불안 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을 추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초·중·고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살펴본다면 각 학령기에 따른 휴대전화의 사용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고충숙(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0, 8~35.
- 구현영(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39(6), 818~828.
- 구현영·박현숙(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6(1), 56~65.
- 김광일·김재환, 원호택(1983). 정신과외래환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의 진단별 특성, 정신건강연구 1, 150~168.
- 김선희·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2.
- 김은미(200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이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인간관계 유지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2), 90~115.
- 김종범·한종철(2004).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주환·진보래(2004).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모바일 미디어, 한국언론학회, 모바일 콘텐츠 이론 및 제작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 김현숙·서미정(2012).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목적에 따른 생태체계적 요인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2), 271~293.
- 김혜수·배성만·현명호(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 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 관계, 주의집중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나은영(2002). 여성의 뉴미디어 이용과 가치관: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2), 77~115.
- 매일신문(2007. 11. 27). 청소년 휴대폰 '너 없어도 난 행복...'
- 머니투데이(2011. 6. 11). WHO "휴대폰 암 유발" 첫 언급.
- 박순천·백경임(2004).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2(9), 135~147.
- 박영진·장성화(2009).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수준 연구: 자기통제력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 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논문집 27, 160~178.
- 박준범(2000).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현상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김귀애·홍창희(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배진한(2001). 이동전화의 충족과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이동전화의 적합성 인식: 세대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4), 160~189.
- \_\_\_\_\_(2003).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가치관과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이동전화의 매체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21, 87~113.
- 성윤숙(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4), 181~197.
- \_\_\_\_\_(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손현경·안숙희·이해정(2006). 중학생에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정도와 사회·심리적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4), 552~562.
- 송은주(2006).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5(3), 325~333.
- 양심영·박영선(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3), 1~16.
- 양영종(2003).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행태와 이용행동과의 관련성, 한국언론학술논총 413~460.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1 청소년매체이용 실태조사.
- 윤현민·박성연(2005).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4, 1~18.
- 이시형·김학수·나은영·이세용·김선남·배진한·최병목·양지윤(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2-1호),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연미·이선정·신효식(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3), 29~43.
- 이유경·채규만(2006). 컴퓨터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11~726.
- 이정화·박정언·최선희(2008).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인터넷 사용·휴대폰 사용·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0(2), 209~221.
- 이해경(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44~157.
- 이해정·김명수·손현경·안숙희·김정순·김영혜(2007).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인구사회적·심리적 변인들의 판별예측력, 대한간호학회지 37(6), 957~965.
- 장성화(2011).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설명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1), 291~310.
- 장성화·박영진(2010). 휴대폰 중독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논단 8(3), 25~41.
- 장성화·오은정(2009).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우울,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1(2), 259~268.
- 장성화·조경덕(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4.
- 장혜진·채규만(2006).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휴대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839~852.
- 정보통신부(2012). IT통계뉴스. 2012.6.25.자
- 조봉환·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병목·조규영·연화준·정무환(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5-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청소년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 한상훈(2008).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 유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403~420.
- 한승수·오경수(2006). 대인관계 유형과 사용경향에 따른 이동전화 중독 성향 연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4), 371~405.
- Bre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Hair, J. H.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Grimm, L. G. and Yarnold, P. R. (E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tz. E., Blumler; J. G., & Gurevitch. M. (1974). Uses and Gratifications Research,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7(4), 509~523.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591.
- Ogata, Y., Izumi, Y., & Kitaike, T.(2006). Mobile-phone e-mail use, social networks, and loneliness among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Nippon Kosghu Eisei Zasshi*, 53(7), 480~492.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tial dist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295~307.
- Plant, S. (2000). On the mobile: the effect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New York: Free Press.
- Sadava, S. W., & Thompson, M. M. (1986). Loneliness, social drinking, and vulnerability to alchochol proble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133~139.
- Young, K. S., & Rogers, R. C.(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8~25.
- 
- 논문접수일 : 2012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1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1월 09일